영암 F1 알고보면 재미도 짜릿함도 2배

5.615㎞ 서킷 55바퀴 주행… 트랙 길이 세계 3위

총 5종류 10등급 좌석, 장·단점 확인 실속 관람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엔진 배기음과 시속 300㎞의 속도로 질주하는 짜릿한 스피드.'

앞으로 41일 뒤 한국 팬들에게 세계 최고의 스피드 축제, F1(포뮬러원) 대회의 매력을 선사할 무대는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이다.

서킷은 F1 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로, 20개 경주장을 돌며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 성격상 서킷 특성을 얼만큼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따라 대회 순위가 결정지어진다. 서킷 사정을 알고 보는 게 레이스를 재미있게 보는 비결이다.

◇"긴 직선코스, 흥미로운 급커브"=지난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중 니코 로즈버그(독일·Mercedes GP)가 내린 영암 서킷에 대한 평가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영암서킷은 길이가 5.615㎞로 55바퀴를 주행하게 된다. 트랙 길이는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길다.

직선 코스는 1.2㎞(1160m). 이 직선 주로(走路)는 F1 대회가 열리는 올 시즌 전 세계 19개 서킷을 통틀어 가장 긴 직선 구간으로, 최고시속 320~330㎞로 달릴 수 있다. 직선 코스를 제외하면 18개 코너(우회전 7개, 좌회전 11개)로 구성돼 있다.

F1 대회는 대회당 300㎞ 정도를 주행하는데 가장 짧은 서킷은 트랙 길이가 3.340㎞인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서킷으로 모두 78바퀴를 주행한다.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서킷은 7.004㎞로 가장 길다. 드라이버들은 44바퀴를 돌아 308.05㎞를 달리게 된다.

영암 서킷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도록 설계됐다는 점으로, 반대방향 서킷은 영암을 포함해 5곳뿐이다. 드라이버들이 주로 쓰는 근육의 반대를 써야하는 만큼 고도의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좌석 정보 알고 관람권 구매해야=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찾을라치면 일단 가격 앞에서 주눅이 들기 쉽다. 경기가 치러지는 3일동안 모든 경기를 볼수 있는 '전일권' 최고가격은 80만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값비싼 좌석에 목 맬 필요는 없다.

2시간 넘게 5.615㎞의 서킷을 55바퀴 도는 24대의 머신을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자리는 어느 F1 대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3일 동안 팔리는 좌석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좌석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속있는 관람 방법이다.

영암의 코리아서킷은 총 관람석이 11만6411석으로, 이 가운데 1만6000석이 메인 그랜드스탠드이고 나머지는 가설 스탠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좌석은 R~S까지 총 5종류 10등급의 가격대로 형성돼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F1 내년에도 10월 개최

FIA, 20개 대회 일정 확정… 12일부터 3일간

내년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일정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최종 확정됐다.

4일 국제자동차연맹(FIA)에 따르면 세계모터스포츠총회(WMSC·World Motor Sport Council)는 지난달 31일 '2012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2012 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 20개 대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 F1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는 3월 18일 호주 맬버른(Melbourne)시 앨버트 파크(Albert Park) 서킷에서 개막전(결선)을 갖고 말레이시아, 중국, 바레인, 스페인(바르셀로나), 모나코, 캐나다, 유럽(발렌시아), 영국, 독일, 헝가리,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아부다비, 미국, 브라질 등 20곳에서 펼쳐진다.

한국 대회의 경우 지난 6월 잠정 발표 때만 내년 4월로 계획됐지만암올 대회와 마찬가지로 일본 대회 다음인 12일부터 3일간 16번째 라운드로 치러지게 됐다.

F1 대회를 주관하는 FOM(Fomula One Management·포뮬러원 매니지먼트)과 개최권료 문제로 진통을 겪던 터키의 경우 내년 대회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터키 대회는 FOM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이 올해까지 1300만달러(한화 140억원)였던 대회 개최권료를 내년부터 2600만달러로 인상키로 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반면, 미국(텍사스 오스틴 서킷)이 19번째 레이스에 참여하게 되고 올 시즌 민주화 투쟁 등으로 중단됐던 바레인 대회(4월20~22일)가 다시 열리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주장 좌석안내

■티켓 가격 (단위:원, 부가세 포함)

등급	좌석명	티켓가격 전일권(10/14~16)	일요일(10/16)	토요일(10/15)
R	메인그랜드스탠드	890,000	720,000	460,000
S	그랜드스탠드 A	690,000	540,000	370,000
A	그랜드스탠드 C	510,000	410,000	260,000
	그랜드스탠드 D	510,000	410,000	260,000
B	그랜드스탠드 B/L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F/E-c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E-a/b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M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G/H	380,000	280,000	170,000
C	그랜드스탠드 I/J	180,000	145,000	87,000

※그랜드스탠드 K, N은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프로모션을 위해 미판매
※조직위는 시기별로 다양한 할인율 적용

R석 (메인그랜드 스탠드)=최고가 좌석이다. 머신들의 스타트와 피니쉬의 감동에 그리드걸, 피트스톱(머신 정비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피트스톱내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S석 (그랜드스탠드 A)=스타트 라인을 마주보는 첫번째 코너에 위치한 좌석으로, 추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지난해 대회에서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는 이 구간에서 선두를 달리던 제바스티앙 페텔(독일·레드불)을 추월하는데 성공했고 코리아 그랑프리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A석 (그랜드스탠드 C·D)=모자 모양의 서킷 북단 위치 상설 피트에 놓인 특별 관람석으로, 트랙과 좌석간 간격이 가장 가깝다. 영암 서킷에서 3번째로 긴 직선 구간(800m)을 거쳐 4~5~6번 코너로 이어지는 M자형 커브길을 통과하는 코너 탈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B석 (그랜드 스탠드 B, E-a,b,c,F,G,H-a,b,L,M)=오른쪽과 왼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3개의 연속 코너 구간으로, 내리막길이지만 짧은 브레이킹으로 지나칠 수 있어 드라이버의 담력과 기술력에 따른 순위 싸움이 볼거리다. F1의 매력인 굉음을 가장 자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C석 (그랜드 스탠드 I-a,b, J-a,b)=영암호의 전경을 배경으로 노을빛을 받으며 달리는 머신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 비교적 저렴한(7만원대) 비용으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경기 전 펠리페 마사(페라리)의 차량에 정비요원들이 달라붙어 타이어를 갈아끼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트랙 밖의 레이스' 피트 스톱이 F1 승부 가른다

정비요원 20명 절묘한 호흡 타이어 교체·차량 점검 '뚝딱'

■F1 100배 즐기기

7월 10일 영국 실버스톤(Silverstone)서킷에서 열린 F1(포뮬러원) 영국 그랑프리. 모두 51바퀴를 도는 레이스 중 28바퀴를 지나면서 각각 1·2위를 다투던 제바스티앙 페텔(24·독일·레드불)과 페르난도 알론소(30·스페인·페라리)의 머신이 동시에 피트(pit·서킷 안의 경주차 정비소)안으로 들어섰다. 20명의 피트 크루(pit crew·정비요원)가 달라붙어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론소가 불과 4.1초만에 머신의 타이어를 갈아끼고 서킷으로 뛰쳐나갔다. 반면, 페텔은 11.4초 동안 피트 안에서 머물렀다. 결국, 이때 1위로 올라선 알론소는 대회 우승 샴페인을 터트리는 주인공이 됐다.

피트 스톱이 일명 '트랙 밖의 레이스'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F1 대회가 드라이버의 기술력과 머신의 성능으로만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드라이버가 질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특히 F1 대회에서는 한번도 타이어를 갈아끼우지 않거나 차량 정비 없이 레이스를 완주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트 스톱(pit stop·머신이 타이어를 바꾸거나 차량 정비를 위해 멈추는 것)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만큼 팀원간 절묘한 호흡도 필수다. 타이어 교환 및 차량 정비를 준비하는 피트 크루는 각 레이스의 특별규칙에 따라 20명으로 제한된다. F1 대회를 위해 한 팀당 보유하고 있는 크루는 대략 150명 안팎이다.

이들은 매년 대회를 앞두고 수백시간 동안 타이어 교체 훈련을 거듭하며 피트 스톱 시간과 횟수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

기상 여건을 고려한 타이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대회 당일 기상에 적합한 타이어를 언제, 어떤 순서로 갈아끼느냐가 승부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올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추석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항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푸른소금(15세)/마당을나온암탉	1관	최종병기 활(15세)
2관	세 얼간이(12세)/행오버2(18세)	2관	마당을나온암탉(전체) 최종병기 활(15세)/통증(15세)
3관	최종병기 활(15세)	3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5세)
4관	푸른소금(15세)	4관	개구쟁이스머트(전체) 가문의영광4(15세)/푸른소금(15세)
5관	마당을나온암탉(전체)/퀵(15세) 개구쟁이스머트(전체)	5관	블라인드(18세)/콜롬비아나(15세)
6관	최종병기 활(15세)	6관	최종병기 활(15세)
7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5세)	7관	콜롬비아나(15세)
8관	콜롬비아나(15세)	8관	명탐정 코난(전체)/챔프(12세) 혹성탈출:진화의시작(15세)
9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5세)	9관	마당을나온암탉(전체)/샤오린(15세)
10관	별을쫓는아이(전체)/블라인드(18세)	10관	푸른소금(15세)

리뉴얼 오픈기념 BIG EVENT 50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 달라진 콜롬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빵빵한 경품이 팡팡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푸른소금(15세)	최고급관
2관	콜롬비아나(15세)/가문의영광4(15세)	
3관	최종병기 활(15세)	
4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2세)	
5관	푸른소금(15세)/챔프(12세)	
6관	퀵(15세)/통증(15세)	
7관	블라인드(18세)	
8관	콜롬비아나(15세)	
9관	최종병기 활(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5세)
2관	콜롬비아나(15세)/세얼간이(12세)
3관	블라인드(18세) 푸른소금(15세)
4관	내여자친구의 결혼식(18세) 마당을나온암탉(전체)
5관	콜롬비아나(15세)
6관	블라인드(18세)
7관	푸른소금(15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